

특 별 강 연

한국 문화의 특성과 독립운동사

이 동 언 연구원
독립기념관 교육사업추진단

I. 韓國文化와 韓國史

1. 지리적 환경

우리나라 지리 현재 영토 기준 -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한반도에 국한. 국토의 넓이 대략 뉴질랜드, 이태리 및 영국과 비슷, 위도상 이베리아반도와 미국의 뉴잉글랜드 혹은 남부 캘리포니아와 근사한 북위 33도-43도에 걸쳐 있다.

한국인의 역사적 영토 - 현재 영토보다 크게 잡아야 한다. 한국의 역사 대략 4천년(반만년, 5천년) 3/4 해당 3천년 간 남만주 · 중국 동북부(현재 요녕성)지방 한국인 활동무대.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현재 중국영토) 지리환경상 차이

- 한반도 - 기원전부터 벼농사.
- 만주지역 - 20세기 초까지 밭농사 중심, 이후 한국인 이주 벼농사 시작. 만주지방 주민 유목민적 요소 말타기 · 기동력 뛰어남.
- 기원전후 시기 성립된 삼국(고구려 · 신라 · 백제) 만주의 반농반목적(半農半牧的) 종족[예맥족]이 한반도 남하, 토착민인 농업정착민[韓族]들과 제휴하여 세운나라, 그 후 유목민과 농업정착민의 요소가 합쳐져 독특한 한국문화 형성.

2. 한반도의 지형

북쪽과 동쪽이 높고, 서쪽과 남쪽이 낮아 대부분의 강이 서해와 남해로 흐르며, 서해안과 남해안에 비옥한 충적평야. 한국의 산맥 중에서 가장 높고 길게 뻗은 것은 백두산에서 동해안을 따라 남으로 뻗어 내린 낭림산맥과 태백산맥, 이 산맥이 중간에서 두 개로 갈라져 한 갈래는 부산방향으로 내려가 바다를 건너 대마도로 연결, 또 한 갈래는 지리산을 거쳐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이어짐(마치 인간이 두 다리를 벌리고 서쪽의 중국을 향해 팔을 벌리고 서있는 모습)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백두산 머리에 비유, 백두산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어내린 태백산맥 백두대간(白頭大幹) 척추에 비유, 백두대간에서 서쪽으로 뻗은 산맥들 정맥(正脈) 갈비뼈에 비유, 백두대간을 북에서 가로지른 산맥 장백정간(長白正幹) 어깨에 비유.

태백산맥에서 서쪽으로 뻗은 작은산맥 사이 -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임진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이 서쪽으로 흐름.(이와 같은 산맥과 강의 배치 사람 인체의 뼈와 혈관의 배합형태와 유사) - 한국인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생명체로 보는 특이한 지리관 (풍수지리)

※ 왕건 고려왕조 창건 풍수지리설 강조

- ① 지방호족의 근거지를 정당화
- ② 명당강조
- ③ 국토재편계획안의 성격
- ④ 문화중심지 이동
- ⑤ 혁명사상의 근거
- ⑥ 북진정책의 원동력 *일제만행 - 쇠말뚝

한국의 산 전국토의 80% 차지, 산의 절반정도 200-500미터 이하 낮은 구릉, 구릉주변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과 개울 발달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주거지의 좌우를 산이 둘러싸고, 그 옆에 강, 하천이 흐르는 배산임수(背山臨水) - 살기 좋은 명당으로 인식, 명당에 살면 행운이 온다고 믿음. 명당이 많고

명당지마다 마을과 도시 형성. 산과 물을 음양과 오행의 관계로 인식. 땅을 음양오행을 빚어내는 생명체 혹은 유기체로 이해하는 풍수지리적 지리관은 산과 물이 아름답게 배합되어 있는 한국지형의 특성에 기인.

3. 한국의 기후

사계절 구분이 뚜렷한 온대에 속함.

여름 섭씨 30도 넘는 열대성기후, 겨울 섭씨 영하 10-20도 혹은 열대와 한대 교차 이중적 성격, 일년 기온차 지역에 따라 차이, 대략 남쪽 20-30도차, 한반도의 북반부 40도, 이러한 높은 기온차 - 인간, 동물, 식물 등 모든 생명체 강인하게 단련, 한국인은 지구상의 어느 곳의 기후에도 적응하는 체력(전세계에 교민분포)

계절에 맞는 의, 식, 주 문화 형성(다양한 생활모습 연출) - 한국의 전통문화 다채롭고 풍부.

- 한국의 토양과 기후조건 - 수전농업 발달 - 벼농사 물과 많은 노동력 필요(풀뽑기, 비료 주기 등) 공동체적 협동 필요, 물과 노동력 관리가 국가의 중요한 기능.
- 자연재해 : 중국 - 황하범람, 황사(黃沙)
일본 - 여름철 태풍, 지진
한국 자연재해 적은 편(한국인 자연에 대해 낙천적, 푸른 산과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밝은 태양을 향유, 한국인의 낙천적인 성격과 가무를 즐기는 민족성 자연환경에서 잉태)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유리한 생활조건 이웃나라의 부러움의 대상

중국 - 예로부터 한국을 신선(神仙)이 사는 곳, 불로초가 나오는 곳으로 이해. 한반도는 중국의 정치변동 중국인 집단적인 망명처.

한국과 중국 황해를 가운데 두고 수많은 항구들이 마주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강들이 황해에서 만남. 두 나라 인구분포 황해연안에 밀집(황해 동양의 지중해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구실)

※ 한국과 일본의 지리적 관계 매우 제한적

한국의 높은 산맥 동쪽에 치우쳐 있듯이 일본의 높은 산맥은 서쪽에 비치, 두 나라 사이에 있는 동해연안 항만이 발달하지 못하고 인구도 희박.

일본은 태평양을 향해 열려 있고, 한국은 중국을 향해 열려 있어 서로 등을 대고 있는 모습. 한국과 일본이 쉽게 만나는 곳은 두 나라 남쪽 대한해협(두 나라 교류)

일본열도 중에서 한국과의 교차가 가장 활발한 곳 남쪽의 규슈(九州)지방, 이곳에서 세도나 이카이 바다를 거쳐 오사카(大阪)과 교토(京都)의 기내(畿内)지방으로 연결 북으로 올라가는 것이 기본통로, 그 통로의 근접 지역인 규슈 국가선설 및 문명발달에 가장 빠름.

4. 한국·중국 · 일본 세 나라의 지리적 관계

세 나라의 역사전개에 중대한 영향, 한국과 중국의 친근성에 비해 한국과 일본의 친근성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 지리적 영향.(일본 동아시아 세계에서 고립성 의미) 일본 외부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창구 한반도의 남부지방에 좁게 열려 있음. 일본인 역사적으로 한국 남부지방 문화 많이 유입 성장, 한국과 중국의 선진문화에 항상 갈증을 느낀 일본은 빈번한 사신 파견 선진문물 수입, 힘이 모아지면 무력으로 한반도 정복 갈증 해소, 이 점이 한국과 일본의 두 나라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

만주와 몽고지방 유목민 한반도의 풍요로운 농산물과 화려한 농경문화 부러움의 대상, 평상시 개인 혹은 부족단위로 귀화 한국인으로 동화, 힘이 모이면 기마족의 기동력을 이용하여 한반도 약탈, 한국은 북방 유목민과 일본약탈자의 침략을 막는 일이 국가경영상 주요한 과제,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낸 인물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이순신)

역사상 중국인과 북방유목민의 이주 끊임없이 이어지고 한반도 인구 과밀지역, 오늘날 한국의 인구밀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이유(오늘날 경제적 요인 추가)

II. 韓國文化의 特性

유목문화와 농경문화 두 뿌리를 가진 한국인 언어상 알타이어계통으로서의 공통점, 지나-티베트어 사용 중국인과 차이점, 고대 중국인들은 알타이어계통의 인종 자신들과 구별하여 '이(夷)'라고 불렀다. '夷'는 중국 최초의 옥편인 허신(許慎, 후한)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하면 '큰 활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北狄
西戎 中華 東夷
南蠻

1. 한국의 도덕성

『論語』 춘추시대 孔子 고조선인 한국 '군자국'으로 인식 뗏목을 타고 조선으로 이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조선과 거리가 가까울 뿐만아니라 '夷族'이 섞여 살던 산동지방[魯나라]의 공자는 조선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중국의 고대지리서인 『산해경(山海經)』이나 동방삭(동방삭)의 『신이경(神異經)』 - 한국인의 높은 도덕성 칭송

2. 한국의 문자와 언어 한국 한자문화권

- 한국의 학술 및 사상 중국의 영향 - 한국문화 독자성 유지
- 언어구조의 차이 - 한자를 차용한 문자생활에서도 차이 - 한국인의 한문 한국식 문장형태 - 한국의 언어체계로 중국경전 읽는 방법 - 구결(口訣), 이두(吏讀) 채용(삼국시대) 훈민정음 창제이후 문자생활 큰 변화 - 한문 지식인층의 고전어로 변모.

3. 한국의 종교

한국인의 종교적 정서 중국과 크게 다름 - 한국인 하늘 숭배사상(敬天思想) 강함. 단군신화 한국인의 종교적 뿌리 - 환인·환웅·단군 삼신일체의 신격(三神) 삼신사상, 삼신이 인간의 생명, 곡식, 질병, 선악, 형벌을 주관, 인간에게 골고루 복을 내려준다는 '弘益人間'의 도덕정신.

불교·도교·유교·카톨릭·기독교 등 외래종교 유입 -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 샤머니즘의 정서 - 외래종교의 한국적 변용.

4. 한국의 춤

어깨동작과 발동작에 포인트(두 팔을 날개로 하여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
- 하늘과 대화하는 몸짓.

5. 한국의 조형미술

하늘을 상징하는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 초가로 대표되는 가옥, 무덤의 지붕양식, 전통시대 금속화폐 둥근하늘속에 네모난 땅을 넣어 형상화.

6. 한국의 음악

민요·창(唱) - 기본적으로 샤만(무당)의 신가(神歌)에서 유래, 한국의 가락 3박자로 대표 - 하늘·땅·인간 합일, 하늘과의 대화, 하늘과 가까운 대자연과의 노래(한국인 즐거움 표현 - '신난다', 즐겁게 일하는 모습 - '신들렸다' · '신바람났다'[사람과 신이 합일되는 순간이 가장 즐겁다는 뜻] 한국인의 종교적 엑스터시 '신바람')

7. 한국의 사상

陰陽五行思想 - 한국인의 음양관 모든사물을 대립으로 보지 않고 포용적 조화관계로 인식(二元的一元論)으로 파악, 태극문양(건물, 가구, 일상용품), 태극기.

※ 五行 - 상생(相生)과 상극(相克)의 두원리 속에서 우주만물이 생성, 변화, 발전한다는 이론, 한국인 투쟁적인 상극보다 평화적인 상생의 측면 선호 한국인은 사람도 상생의 순서에 따라 출생 수-목-화-토-금-수의 순서로 作名(이름지음)

왕조교체도 상생논리로 이해[신라 - 金, 고려 - 水, 조선 - 木 왕조로 자임, 각 왕조는 이를 상징하는 9, 6, 8의 숫자 애호, 행정구역 : 신라 - 전국 9주, 고려 - 전국 6도(5도양계), 조선 - 전국 8도, 오행사상과 관련)

8. 한국인 가족·마을·국가공동체에 대한 충성심 강화

부모에 대한 孝, 국가에 대한 忠 - '君子國' · '東方禮義之國'의 호칭.
한국인의 최고의 孝 - 祭祀, 제사의 시작은 祭天(하늘을 부모로 생각, 하늘에 대한 제사가 바로 효의 시작), 儒教유입, 孝의 대상 하늘에서 부모로 바뀜. 효를 매개로 하는 한국의 대가족제도(부모모심, 세금공제 세계에서 유일, 경로우대)

한국인 예로부터 마을공동체의 경제적 상부상조와 도덕질서의 확립 '두레·계(契)·향도(香徒), 조선시대 - '향약(鄉約)'

9. 한국의 교육

높은 교육열[공부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즐거움, 교육 받은 선비(학자)가 정치 - 유교의 특성], 교육과 관계되는 목판인쇄술과 금속활자 세계 최초 발명.

Ⅲ. 일제의 한국강점 당시 국제정세

일본 명치유신(1868) - 서구 여러나라와 원만한 관계 유지(협력관계)
일본 만주 침략 -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들과 불편한 관계
일본 한국 식민지화 - 일본의 힘이 강해서가 아님. 이러한 사실은 러·일전쟁(1904-1905) 당시 영국과 미국이 일본에게 전쟁비용의 대부분을 지원. 그 이유는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침략 기회를 미루고 있던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이용하기 위함. 그 과

정에서 한국침략 기회부여.

카스라·테프트밀약(1905년 7월 29일) - 미국이 필리핀을 일본이 한국을 삼키기로 합의. 영일동맹(상호군사조약) 등은 미국·영국·일본의 침략야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

IV.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정책 유형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전까지)

1. 영국형

사회경제적 수탈의 극대화를 목적으로한 '간접지배'를 원칙.

식민지 관리 - 토착인 일부 고용(토착인 어느정도 교육실시).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토착인 애국세력을 분열시켜 서로 대립하게 하여 지배하는 '분할과 지배'의 정책을 적용.

영국형은 식민지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탈을 극대화하려는 식민지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였으나 토착인의 민족보존 운동이나 민족문화운동에 대해서는 방관적 정책을 취하였다.

2. 프랑스형

사회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영국형과는 달리 '직접지배'를 원칙으로 함.

식민지 관리는 대부분 프랑스인을 채용. 프랑스형은 토착인의 민족보존운동에는 방관적이었으나, 민족문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를 교육을 통해 통제하고 프랑스식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하였다.

3. 네덜란드형

영국형과 유사하게 사회경제적 수탈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였고 '간접지배'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영국형보다 더 '간접지배'를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네덜란드형은 토착인의 추장이나 왕의 자기 부족이나 민족에 대한 정치적 지배도 그대로 온존시키면서 추장들에 대한 지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지배하면서 사회경제적 수탈을 극대화하였다. 네덜란드형은 토착인의 민족구성이나 민족관습 또는 민족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이를 침해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케하면서, 이에 의해 독립운동의 저항을 극소화시킴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수탈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다.

4. 일본형

프랑스형을 모방하여 사회경제적 수탈과 함께 '직접지배'의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프랑스형과 근본적으로 다른점은 '동화(同化)'라는 미명하에 한국민족에 대한 '민족말살정책'을 강행한데 있다. 일본제국주의는 한국민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탈과 함께 민족으로서의 한국민족은 지구상에서 소멸시켜 버리고 한반도에 거주하는 생물학적 의미의 조선인(조선인)을 일본인의 심부름을 하는 일본제국 내의 총체적 천민층으로 만들려는 '민족말살정책'을 채택한 것이 서양 제국국주의 열강의 식민지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V. 한민족독립운동사

1. 의병전쟁 2. 애국계몽운동 3. 국내독립운동 4. 3·1운동 5. 문화운동 6. 학생운동 7. 독립군과 만주 노령지역 독립운동 8.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 10. 의열투쟁

※ 의병전쟁

1) 의병의 개념

① 맥켄지(F.A Mckenzie : 영국 데일리메일지 기자)

『한국의 비극』 - 정의의 군대(Righteous Army) : 영역
정상적인 영어 - 의용군(Volunteer)

② 백암 박은식선생(민족사학자, 임정 2대 대통령)

‘義兵이란 民軍이다. 國家가 위급할 때 즉시 義로써 일어나 朝廷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종군하여 싸우는 자이다.’

(한국인의 이불 천 - 위는 붉은 색, 밑은 검은 천 - 한국 고유이불의 특색 - 한국인은 자다가도 갑작스런 적의 기습경보가 울리면 옷을 입고 무기를 드는데 그때 이불의 붉은 천을 뜯어 둘러 매고 싸움터로 나감)

“의병은 우리민족의 국수다.”(義兵者 吾族之國粹也)

“나라는 망해도 의병은 망하지 않는다.”

(임진왜란·고려 항몽전선·고구려나 백제의병의 용전, 한말 의병은 이같은 민족사의 맥락을 이어 일어나 것으로 1895년에 단순한 배일감정으로 일어난 우발적인 운동이 아니다)

※ 독립운동사와 의병

의병→독립군→광복군

1895년 의병전쟁 - 독립운동의 효시

1) 황현

『매천야록』 - 遺稿, 애국적인 한말 의병투쟁을 높이 평가.

1910년 순국하기 전에 절명시 4수 남김.

“일찌기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바도 없고 충성한 바도 없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뿐 생전에 한 번 의병을 일으키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2) 박은식

『韓國痛史』(1916), 『韓國獨立運動之血史』(1920) - 의병전쟁을 독립운동사의 원류로 인식. 이 충의의 민군이 없었던들 무엇을 가지고 일제침략자에 대해 우리민족이 싸웠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 반문 이 전쟁으로 15만명이나 전사하였으며 일제는 의병을 滅殺하기 위해 이나라 3천리 강토에 첫조각 하나 남지 않게 무기란 무기는 모조리 앗아 갔다고 폭로. 의병전쟁의 의의를 그 성패에 따라 평가하는 태도 비판 - “만일 의병이 이기고 진 것을 가지고 의병을 평가한다면 의병의 본질을 천박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경고.

※ 『한국독립운동지혈사』 - 3·1운동의 배경을 왜곡 보도하는 일제 침략자들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집필. 즉 일제가 3·1운동을 구미열강의 힘에 의뢰하여 독립을 얻어 보려고 한한민족의 사대주의적 심산에서 나왔다고 왜곡.

※ 박은식 선생 : 3·1운동은 결코 제1차세계대전 후의 정세변화를 이용한 기회주의적 독립운동이 아니라 1910년 나라가 병합되기 이전부터 시작된 의병전쟁의 연결이라고 주장. 다시말해서 의병전쟁이 3·1운동으로 재현.